

## 尹 대통령 외교 與野 반응

# “尹, 북핵 해결의지 보였다 野, 국가원수 공격 선 넘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 국제연대 통한 자유수호 의지 천명  
현정부 들어 한일관계 큰 변화 일어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맞섰다. 민주당이 ‘성과 없는 굴욕 외교’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유엔(UN) 연설에서 세계 시민이나 국가가 자유를 위협받을 때 국제 사회와 연대해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국제 연대를 통한 자유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첫 UN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데 대한 민주당 측 비판에 대해서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제규범 체계에 입각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유 진영의 연대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 눈치만 살펴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계기에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식 회담을 한 데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 수준으로 조속히 복귀하고 싶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스

윤 대통령 의지를 (국민의힘은) 이어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양국 간 휘발성 큰 쟁점 현안도 남아있지만, 이견과 갈등은 잠시 내려놓고 공동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부동준이의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윤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에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으며 국가 원수를 공격하고 있다”고 맞섰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당시 조문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비판한 데 대한 지적이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 방문 때 혼밥(혼자 식사)하고 언론인이 공안에 두드려 맞았던 일이 진정한 외교 참사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영국에 간 목적은 조문”이라며 “상대국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애당이 생트집 잡는 것은 지극히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바이든과 48초 짧은 만남 막말 사고, 해명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尹 외교 참사에 공세

“욕설모습 포착… 국익·국격 떨어져  
준비되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 결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정식 회담이 아닌 30분간 악식 회담을 했고,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해 48초간 짧은 만남을 가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뜨거웠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전용기 의원이 이를 지적한 데 이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바이든 대통령 주최 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48초간 짧은 만남을 가진 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현지 영상에 담겨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저도 이 영상을 확인하면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대화 내용을 제 입으로 옮기진 않겠지만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비속어로 지칭했다던 소문이 있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익을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외교 자리에서 미국 의회를 향해 욕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통령의 타국 의회를 향한 욕설 입버릇이 영상에 담기며 정상외교 자리에서 국익과 국격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평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스

오 대변인은 “무엇보다 더 큰 걱정은 막말 외교 사고의 큰 후폭풍”이라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국내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성과를 기대했던 국민에게 윤 대통령이 남긴 것은 욕설 사고 핵폭탄밖에 없지 않나. 참담하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 실 관계자는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이 오갔는지 정중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약식으로 치러진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급박하게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다 보니 서로 일정과 장소도 안 맞고 준비도 안 되는 부분”이라면서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결례”라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pth7285@

## 정책위원장에 성일종 등 원내지도부 구성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단 바꾸기 어려워 그대로 모셔”  
원내수석부대표직에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지도부 구성이 22일 마무리됐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끌 원내지도부는 전임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임명한 인사들을 대부분 유임 시켜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한 가운데 원내지도부를 새롭게 꾸려 현안에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정책위원장과 원내부대표 임명안에 대해 박수 추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추인에 앞서 “전

임 원내대표가 사임하면 원내부대표단도 전부 사임하고 재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현재 정기국회 중이라서 정책위원장과 원내부대표단을 바꾸기 어려워 그대로 모시고 가려고 한다”고 했다.

의총 추인에 따라 성일종 의원은 정책위원장직을 이어간다. 송언석 의원도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이어간다. 주호영 원내지도부에 새롭게 합류한 인사는 정책위원장과 원내부대표단을 재선의 흐름을 이루는 원, 원내대변인에 초선 김미애·장동혁 의원이다.

주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부터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경북 김천)에 이어 기존 원내대변인이었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 지역구가 모두 대구·경북(TK)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미애 의원은 부산 해운대을, 장동혁 의원은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다.

당 정책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보건복지위)·김정재(국토교통위)·박성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윤한홍(정무위)·이민희(행정안전위)·신원식(국방위)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했다. 원내부대표단도 한무경·박대수·김선교·윤두현·조은희·안병길·김희곤·서일준·홍석준·이종성·전봉민·김병욱 의원 등 12명이 유임됐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스

## 5년간 공기업 6곳에 해킹 시도 900여 건

## 이인선 의원 “대응태세 철저 점검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발전 공기업 6개 사에 대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간 900여 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악성코드 공격을 기반으로 한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던 만큼,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발전 6개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 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 해킹 시도는 총 918건이었다.”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공기업 해킹 문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발전소 해킹으로 인한 해외 피해 사례가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인선 의원은 “발전소 및 송·배전 시설이 해킹당해 대규모 블레이아웃이 발생한다면 기업과 가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북한 해킹 조직이 올해 미국, 캐나다, 일본 에너지 기업을 공격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태세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 한미정상회담 불발… 환담 형식 만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당초 대통령실이 밝혔던 이번 순방에서 기대한 한미정상회담은 불발되고 정상 간 환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 간 환담 결과를 배포하며 지난 1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 이날 오후 뉴욕에서 진행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와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까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의 기자 pathfinder@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만남을 통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화장억제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율리 양 정상은 필요 시 금융 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